

삼성카드, 건전성 관리로 ‘업계 1위’ 톱밀 추격

상반기 순익 3628억… 25% ↑
‘업계 선두’ 신한과 165억 격차
지난해 동기대비 36.78% 줄어
하반기 데이터사업 경쟁력 강화

삼성카드가 2분기에 호실적을 거두면서 ‘업계 1위’ 신한카드와 격차를 줄였다. 지난해 업황악화로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평가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카드는 362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2906억원) 대비 722억원(24.8%) 증가하면서 깜짝실적을 거뒀다. 영업수익은 1조9993억원으로 연간 2.2% 오르는 데 그쳤지만 대손충당금을 크게 줄인 효과다. 상반기 삼성카드가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3161억원이다. 전년 상반기(3716억원) 대비 14.9% 감소했다.

삼성카드는 연체율 관리에 공을 들인 데다 차입금 만기구조 개선에 집중했다. 올 상반기 삼성카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0.99%다. 전년 동기 대비



서울 세종대로 삼성카드 사옥. /삼성카드

0.11%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말 1.18%까지 상승했지만 직전 분기를 시작으로 내림세다. 신규 연체율은 지난 1분기에 이어 0.5%를 기록했다.

대손비용률은 2.2%다. 직전 분기(2.7%) 대비 0.5%p 떨어졌다. 각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3년 3분기(1901억원) ▲2023년 4분기(1582억원) ▲2024년 1분기(1753억원) ▲2024년 2분기

(1408억원) 순이다. 분기별 등락을 나타내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차입금 포트폴리오도 개선했다. 회사채·장기 기업어음(CP) 비중은 77.8%로 6개월간 0.4%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7%에서 20.8%까지 늘렸다. 반면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일반대출은 2.2%p 줄어든 1.4%며 단기사채에서는 손을 댔다.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카드의 조달잔액은 17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말(17조6000억원) 대비 1.7% 줄었다.

채권잔고는 연간 1000억원 감소한 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용판매 비율은 0.9%p 줄어든 70%를 차지한다. 할부·리스(3.4%)와 현금서비스(3.7%) 비중은 각각 0.2%p, 0.4%p씩 떨어졌다. 반면 카드론 비중은 1.5%p 상승한 22.9%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비용 줄이기와 연체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상반기 호실적은 건전성 관리를 철저하게 한 영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신한카드

와 차이를 좁혔다. 업황악화를 기회로 바꿨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상반기 순이익 격차는 165억원이다. 지난해 동기(261억원) 대비 36.78% 줄었다.

카드업계 호황기에 신한카드는 독주를 이어가면서 삼성카드와의 간격을 벌렸다. 지난 2020년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상반기 순이익 격차는 799억원이었다. 다음 해에는 850억원까지 벌어졌다. 신한카드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둔 지난 2022년에는 968억원의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데이터 사업 경쟁력 확보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선다. 삼성카드는 데이터 플랫폼인 ‘블루 데이터 랩(BLUE Data Lab)’을 공개하고, 세빌스코리아와 아모레퍼시픽 등과 데이터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카드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자산건전성 관리와 효율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인기 캐릭터 카드로 고객사 ‘잘파세대’ 유치 지원. /비씨카드

비씨카드-iM뱅크

잘파세대 맞춤형 혜택 캐릭터 적용 카드 선택

비씨카드가 청년층 공략을 위해 캐릭터를 적용한 카드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캐릭터 카드, 잘파세대 ‘정조준’

비씨카드는 ‘폴티즈 앤 리트리버’ 캐릭터를 적용한 ‘iM A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iM뱅크와 협업을 통해 개발했다. 카드 플레이트는 ▲맹라이프 ▲맹크라이 ▲맹맹맹 등 3종으로 구성했다.

잘파세대 맞춤형 카드혜택을 탑재했다. 온라인쇼핑과 편의점,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5% 할인을 제공한다. 이어 커피전문점과 정기구독 서비스 업종은 할인율은 10%로 책정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신협중앙회와 함께 청소년 특화 ‘신협 100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100’은 ‘귀여워’의 초성을 반영했다. 유쾌어나 줄임말을 자주 쓰는 잘파세대 특성을 담았다.

김호정 비씨카드 상무는 “향후에도 젊은 고객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캐릭터 카드를 출시하고 마케팅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한카드-신보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캐시백·경품증정 행사

신한카드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침체하고 소외된 상권을 지원한다.

◆침체한 상권에 ‘활기’

신한카드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8월 1일부터 4개월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굴한 소규모 상권 25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백 쿠폰을 제공한다. 가맹점은 4000여곳이다.

쿠폰은 신한 솔(SOL)페이 앱 내 ‘마이샵’ 페이지에서 수령할 수 있다. 2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돌려준다. 대상 상권은 마이샵 페이지와 서울특별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한 달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24곳 이상 상권을 방문한 고객 1명을 추첨해 10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어 상권 12~23곳을 방문한 고객 중 2명을 추첨해 5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골목상권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탄탄한 배후수요 증가 기대… 대중교통·인프라는 아쉬워

부동산 현장 르포

성남 ‘판교밸리자이’

단지 3km 내 1·2 테크노밸리 위치
오피스텔-아파트 단지 생활권 공유

“이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 확장의 최대 수혜지역이다. 단지에서 3km 이내에 판교 제1, 2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고 제3테크노밸리도 조성 예정이다. 해당 부지 내에 공공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플래닛’이 들어서면 앞으로 수요는 더욱 몰릴 것이다.”

31일 찾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지구에 위치한 ‘판교밸리자이’. 단지 인근 분양사무소 직원 A씨는 미래 비전을 고려하면 앞으로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교밸리자이는 아파트 전용면적 60~84㎡ 350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59~84㎡ 282실로 구성돼 있다. 지하 2층~지상 14층 3개동 규모다. 지난 2021년 1월 분양해 지난해 2월 입주했다.



판교밸리자이 정문. /전지원 기자

지난 30일에는 오피스텔(2단지) 5가구의 청약이 진행됐다. ▲59㎡ A타입 2가구 ▲84㎡ A타입 1가구 ▲84㎡ B타입 2가구가 나왔고 분양가는 각각 59㎡ 7억5700만원, 84㎡ 10억500만~10억6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단지는 지난해 7월 전용면적 60㎡가 6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가격이 높은 편임에도 84㎡ A타입은 14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A씨는 “일반적인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 단지와 생활권을 공유한다”며 “오피스텔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막상 와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잔금을 치르지 못한 아파트 1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와 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4년 전 가격으로 나와 3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

들이 몰린 것.

반면 대중교통은 부족한 편이었다. 판교밸리자이에서 가장 인접한 역은 수서역이다. 역으로 가는데 버스로 20분 정도 소요됐다. 배차간격은 최대 25분이다. 판교현대백화점까지는 버스로 35분 걸렸고 배차 간격은 최대 30분이다.

인프라도 아쉬웠다. 단지 앞에는 아직 상가가 모두 들어오지 않아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다.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면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문화시설 등도 없었다.

또다른 분양사무소 직원 B씨는 “인근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차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중교통편이나 인프라는 아쉬울 수 있지만 교통편 자체는 좋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고속도로 등이 고등지구를 둘러싸고 있다”며 “강남, 송파 등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교밸리자이 2단지 청약 당첨자는 8월 2일 발표된다.

/전지원 기자 jiw13@

6월 주담대 금리 3.71%… 8개월째 하락

고정형 연 3.69%, 변동형 연 4.2%
저축성 수신금리도 0.04%p 하락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연 3.71%를 기록했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11월은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던 시기로, 낮아진 주담대 금리가 내집마련 욕구를 자극시켜 또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6%로 한달 만에 0.23%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금리는 연 3.71%로 2023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떨어졌다.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은행채(AA·A·5년물) 금리가 전달보다 0.24%포인트

(p) 내리면서 전달보다 0.2%p 하락한 연 3.69%를 기록했다. 변동형 금리도 코픽스 금리가 0.04%p 내리면서 0.06%p 하락한 4.2%로 집계됐다.

김민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가 코픽스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담대 중 고정형의 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주담대 중 고정형을 선택한 비중은 94.9%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3.84%로 한달전과 비교해 0.06%p 낮아졌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

다. 신용대출은 연 6.04%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7%p 내렸다.

아울러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의 예금금리도 하락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5월 연 3.55%에서 6월 연 3.51%로 0.04%p 낮아졌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고객이 받는 금리를 통칭한 것으로, 일반적인 예·적금 금리를 뜻하는 순수저축성예금과 채권상품을 뜻하는 시장형금융상품 등을 포함한다

/나유리기자 yul15@